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국제회계기준(IFRS) 도입과 영향

- 금감원은 2011년 IFRS 적용기업을 대상으로 IFRS 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2010년 IFRS 사전공시사항을 기초로 하여 업종별·이슈별로 분석함.
 - 은행, 카드, 자동차, 전자, 조선 등 18개 주요업종에 대하여 업종별로 2~10개 회사를 선정하여 총 65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함.
 - 금융업종 17개사의 경우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는 IFRS 도입 영향이 큰 반면, 카드, 캐피탈, 부동산, 신탁사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.
 - 일반업종 48개사의 경우 업종 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으며, 에너지, 해운, 항공업은 영향이 큰 반면, 거래구조가 단순한 중소기업은 영향이 미미함.

- 2010년 IFRS 조기적용기업의 2009년 K-GAAP 현금흐름표와 IFRS 현금흐름표를 비교한 결과, 개별 현금흐름표와 연결 현금흐름표 간에 차이가 발생함.
 - 금감원은 2010년 IFRS 조기적용기업 47개 회사 중 10개 회사의 2009년 현금흐름표를 대상으로 IFRS 도입에 따른 현금흐름의 변동내역을 분석함.
 - 개별 현금흐름표의 경우에는 기초·기말 현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없었으나 영업·투자·재무 등 각 활동별 현금흐름 간에 차이가 발생함.
 - 연결 현금흐름표의 경우에는 IFRS 도입에 따른 연결범위 변동으로 기초·기말 현금액이 변경되었으며 각 활동별 현금흐름도 개별 현금흐름표보다 크게 변동함.

- 금감원은 IFRS 도입으로 수혜업종과 불리업종이 존재하지만, 이는 기업의 펀더멘탈 변동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투자분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.
 - IFRS 도입에 의한 효과와 실제 영업·재무상태 변동에 의한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 IFRS 사전공시사항과 차이조정 공시 등을 투자판단 시 적극 활용해야 함.
 - 연결 중심의 공시체계로 전환되므로 연결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분석이 필요한 한편, 자산 2조원을 기준으로 지배기업 2011~12년 분기·반기 연결재무제표의 공시여부가 결정되므로 비교 분석 시 유의해야 함.

(IFRS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 분석, 금감원, 5/16)